

‘군살빼고 젊게’… 구현모號, 임원 줄이고 젊은피 중용

KT, 첫 조직개편 단행

고객 수용, 혁신, 준법경영 초점
박윤영 사장 승진… 협치 체제로
고위직 8명 등 임원수 12% 줄여
신규 임원 27% 70년대생 ‘약진’

KT가 차기 CEO로 내정된 구현모 사장의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6일 밝혔다. KT는 이번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통해 디지털혁신을(DX) 위한 미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AI·DX융합사업부문 신설

KT는 ▲빠르고 유연한 고객 요구 수용 ▲5G 및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혁신가속화 ▲글로벌 수준의 준법경영 체계 완성에 초점을 맞춰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고객 중심 조직 전환을 위해 영업과 상품·서비스 개발로 나눠져 있던 조직을 통합했다. 기존 커스터머&미디어부문과 마케팅부문을 합쳐 ‘커스터머부문’을 신설하고, 소비자고객(B2C)을 전담한다. 신설된 커스터머 부문은 5G, 기가인터넷을 중심으로 유무선 사업과 인터넷TV(IPTV), 가상현실(VR) 등 미디어플랫폼 사업에 대한 상품·서비스 개발과 영업을 총괄한다.

기업고객(B2B)과 글로벌고객(B2G)



을 담당하던 부서도 통합했다. 기존 기업사업부문과 글로벌사업부문을 ‘기업부문’으로 재편했다. 기업부문은 기업고객들의 ‘디지털 혁신’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영업과 네트워크로 나뉘져 있던 각 지역본부도 통합했다. 전국 11개 지역고객본부와 6개 네트워크운용본부를 6개 광역본부로 합쳐 고객 서비스와 기술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KT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AI·DX 사업부문을 신설해 5G 통신 서비스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합해 소비자 및 기업 고객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AI·DX융합사업부문장은 최고 디지털혁신책임자(CDXO)로서 KT의 디지털혁신을 책임지는 전홍범 부사장을 보임했다. 전홍범 CDXO는 디지털 혁신을 담당하는 부서로 통합했다. 기존 기업사업부문과 글로벌사업부문을 ‘기업부문’으로 재편했다. 기업부문은 기업고객들의 ‘디지털 혁신’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영업과 네트워크로 나뉘져 있던 각 지역본부도 통합했다. 전국 11개 지역고객본부와 6개 네트워크운용본부를 6개 광역본부로 합쳐 고객 서비스와 기술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신 사업모델을 만드는 선임 부서장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부서와 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준법경영 위해 책임자 선임 예정

KT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했다. 그간 비상설로 운영하던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이끌어갈 수장으로 최고 준법감시책임자(CCO)를 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임할 예정이다.

또한 KT는 미래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AI 및 클라우드 분야의 핵심인재 육성, 고객발 자기혁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선정했다. 3대 핵심과제는 CEO가 직접 주도한다. 이를 지원할 CEO 직속조직으로 ‘미래가치TF’를 신설하고, TF장으로 김형욱 전무를 선임했다. 이번에 신설된 미래가치TF는 혁신의 컨트롤 타워로서 KT의 변화를 이끈다.

◆변화와 혁신이 핵심…젊은 인력 발탁

KT는 이번 임원인사에서 조직에 변화와 혁신을 주기 위해 젊은 인력을 대거 발탁했다. 이번에 사장 1명, 부사장 2명, 전무 5명이 승진했으며, 상무 21명이 새로 임원이 됐다. 이번 인사로 KT 임원의 평균 연령은 52.1세로, 전년 임원 평균 연령(52.9세)에 비해 한 살 가량 낮아졌다.

KT 임원의 수는 전년 대비 약 12% 줄어든 98명이 됐다. 2016년 이후 4년 만에 임원 수가 두 자리 숫자로 축소됐다. 또 전무 이상 고위직을 33명에서 25명으로 줄여 짧고 민첩한 실무형 조직으로 변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박윤영 기업사업부문장은 기업사업부문과 글로벌사업부문을 통합한 기업부문장을 맡는다. KT는 차기 CEO로 내정된 구현모

사장 이외에 박윤영 사장이 승진하면서 복수의 사장 체계를 갖추게 됐다.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철규 인프라운용혁신실장은 전사적으로 통신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차세대 통신 인프라 혁신기술 개발을 주도한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았다. 신현옥 경영관리부문장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정착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기업문화를 확산시킨 공로가 승진의 배경이 됐다.

특히 이번에 신규 임원(상무)이 된 21명 중 27%가 1970년대생(50세 이하)이다. KT 임원은 5명 중 1명꼴 (22.5%)로 50세 이하가 돼 조직의 활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즈(Biz) 사업을 이끌고 있는 1972년생 김봉균 상무는 이번에 전무로 승진해 1970년대생이 고위 임원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을 쐈다. KT는 단순히 고연령 임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인재를 중용한다는 인사원칙으로 구성원들의 성취동기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욱 KT 전략기획실장 부사장은 “KT는 고객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를 신속하게 만족시키기 위해 고객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변화시켰다”며 “이번에 중용된 인재들은 차기 CEO로 내정된 구현모 사장의 경영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KT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현대삼호重, 세계 최대 중량물 육상 이동

육상공법 적용 100번째 선박 건조

현대삼호중공업이 2008년 선박 육상 건조장을 완공한 이래 세계 최대 중량 물이 이동 기록을 경신하며 100번째 선박 육상 건조에 성공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16일 일본 NYK 사가 발주한 17만4000㎥급 LNG운반선의 선체를 플로팅독까지 이동하는 작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이 선박은 길이 297m, 폭 46.4m, 깊이 26.5m로 선박에 설치된 쪽장 등 각종 설비까지 합해 무게가 3만9000t에 이른다.

분당 평균 1.8m씩 3시간 반 동안 350m가량 이동했다. 이번 선박 이동은 기네스북에 오른 1만5000t급 선박 무게의 두 배 이상을 초과하는 세계 최대 중량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서 LNG선박 건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물의 육상 이동 작업에 해당한다고 현대삼호중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육상건조장에서 건조된 선박은 유조선이 47척으로 가장 많고, 가스선이 19척, 벌크화물선이 18척, 컨테이너선이 16척 등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U+, 초등생 맞춤형 20만원대 스마트폰

‘카카오리틀프렌즈폰3’ 출시

LG유플러스는 신학기를 맞이해 초등학생 맞춤형 스마트폰 ‘카카오리틀프렌즈폰3’를 17일 단독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카카오리틀프렌즈폰3는 지난해 2월 출시한 카카오리틀프렌즈폰2에 이어 1년여 만에 선보이는 후속 모델이다. 자녀 스스로 스마트폰을 관리하고 교육 콘텐츠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전자

시리즈의 자녀 휴대폰 관리, 위치조회 등 핵심기능과 초등학생 맞춤형 3D 입체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녀 휴대폰 관리는 실시간 앱·데이

터 제한설정, 통화·문자 대상 지정 기능

외에도 ‘스스로모드’를 새롭게 추가했다. 스스로모드는 자녀가 스스로 스마트폰 앱 사용계획을 세워 부모와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사용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하는 기능이다. 출고가는 23만9800원이다.

/김나인 기자

로봇 자동관리… ‘시그니처’ 일반 모델로 확대

LG전자 휘센 씽큐 2020년형 공개

로봇이 자동으로 극세필터 청소
4단계 시스템으로 공기질 관리
AI가 바람 세기도 알아서 척척
앱으로 환기, 냉매량 여부 확인



LG전자가 16일 서울 강남구 청담 디자인 클럽에서 2020년형 ‘LG 휘센 씽큐 에어컨’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로봇이 에어컨을 관리해주는 시대가 왔다. LG전자 휘센 씽큐 2020년형이 주인공이다.

LG전자는 16일 서울 압구정 디자인 클럽에서 휘센 씽큐 에어컨 신제품을 29종을 발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LG전자는 신형 휘센 성능을 한층 끌어 올렸다. 냉매를 압축하는 실린더를 2개 담은 듀얼 인버터 기술을 활용해 냉방 면적을 18·20·23 평형으로 1평형씩 넓힌 것. 이를 이용해 에너지 효율도 극대화했다.

특히 휘센 신형은 제품 관리를 전적으로 로봇과 인공지능(AI)에 맡겨 편의성을 대폭 제고했다. 청소부터 점검 안내까지 자동으로 해줄 수 있다. ‘조프리미엄’ 시그니처 에어컨을 일반 모델로도 확대한 모습이다.

필터 클린봇이 대표적이다. 휘센은 시그니처 에어컨에 처음 적용했던 필터 클린봇을 탑재해, 누적 56시간 가동(하루 8시간 기준 일주일)마다 자동으로 극세필터를 청소해준다.

LG전자가 내세운 신형 휘센의 새 기능은 4단계 청정관리다. 필터 클린봇은

첫번째 단계, 그 다음으로는 흡입구 전면에 장착된 필터가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해준다. 한국공기청정협회 인증 CAC도 획득했다. 에어컨이 공기청정 능력도 완벽하게 수행하는 셈이다. 신형 제품 90% 이상이 공기청정 기능을 갖췄다.

그 다음으로는 송풍 기능이 전원을 끄면 스스로 열 교환기를 건조해준다. 전작보다 더 업그레이드 해 작동 시간을 3단계로 조절 가능해서, 상태에 따라 길거나 짧게 작동 가능하다.

송풍팬도 완벽하게 살균해준다. UV 나노 기능을 적용해 UV LED가 손에 닿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관리해준다. 독일 TUV 라인란드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유해세균 99.9% 살균 능력을 검증 받았다. PM1.0 미세먼지 센서를 장착해서 실내 공기질을 파악하고 공기청정 작동 필요성도 알린다.

공기질만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아니다. 3세대 인공지능 스마트케어와 모션센서를 탑재해 실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감지할 수 있다. 활동량이나 사람 수에 따라 냉각 세기를 3단계로 조절해준다. 사람이 없을 때에는 절전모드를 가동해준다. 모드를 변경할 때에는 음성으로 안내하며, 필요한 정보도 설명해준다.

프로액티브 서비스도 적용했다. 에어컨 작동 상태를 분석해 극세필터 청소나 냉매량 부족, 실외기 온도 상승과 환기 등 정보를 LG 씽큐 앱으로 알려주는 기능이다. 필터 구매 등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컬러도 추가됐다. 로맨틱 로즈와 뉴메탈샤인 등 프리미엄 컬러와 함께 무광 컬러인 웨딩 스노우도 추가했다. 가격은 285만~540만원이다. /김재웅 기자 juk@